

하겠다.

大便器 사용법

환자의 수치심을 생각하고, 환자가 편한 마음으로 배변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마련해 주기위해서, 먼저 포장이나 미닫이로 칸막이처럼 가려주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덜개는 종이불 한장으로 환자를 바로 눕혀 잠옷은 더럽혀지지 않도록 신문지나 비닐지를 포대기 위에 깔고 무릎을 세우도록 한다. 변기를 사용하기전에 더운물로 변기를 깨끗하게 하고 물방울을 잘 씻어 대변이 직접 닿지 않도록 속에 종이를 깎는다.

간호인은 환자 허리바른편에 앉아 왼손을 허리밑에 깊숙히 넣어 궁둥이를 치켜들면서 오른손으로 변기를 비스듬히하여 항문이 변기 중심에 올 만큼 깊이 넣어 변기 위에 허리가 살며시 내려 오도록 한다. 남자인 경우에는 소변기도 같이 사용하도록 한다. 형편을 보아 가능하면 자기가 처리할수 있도록 휴지 또는 벨을 손닿는 곳에 두고 방밖으로 나가 소식이 있을때까지 기다린다. 끝나면 주위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며 변기를 내가고 환자의 손을 씻게한다. 병상을 정돈하고 방안 냄새를 없애기 위하여 환기를 한다.

대 소 변 과 관 장 유 동 준



변기의 종류와 주의사항

변기에는 금속물, 사기제품, 요강같은 모양등 여러가지가 있다. 尿器에는 유리, 플라스틱제가 주로 시판되고 있다.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기는 사기를 선택, 요기는 유리제가 청결 유지상 좋다고 본다. 피부가 약한 사람, 여원 사람에게는 피부에 닿는 부분을 형질으로 잘 선택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고려하는것이 바람직

●가정요법 특집

小便秘 사용법

소변기도 대변기 사용법과 같은 요령이다. 포대기 밑으로 소변기를 전해 준다. 여자의 경우 충분히 의음부의 아래까지 깊숙히 소변기를 대고 의음부에 두겹 가량 휴지를 대면 튀지 않는다. 끝나면 요도로 부터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휴지로 반드시 앞에서 등뒤쪽으로 씻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重患者의 경우

몸집이 큰사람이나 중환자로 몸을 움직일수 없을때에는 환자의 고통을 덜기위하여 두사람이 시중을 든다. 한사람은 환자의 허리와 무릎밑에 손을 넣어 쳐들고 다른 한사람은 한 손으로 환자의 몸을 받치면서 변기를 깊숙히 넣는 동시에 들어올린 허리를 살며시 내려 놓는다. 환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의음부의 휴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 주거나 하고, 남자인 경우는 소변기를 들어주기도 한다.

灌腸하는 방법

누구나 병들게 되면 생활의 변화나 질병 그 자체의 영향으로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되거나 한다. 변비가 오래 계속되면 관장을 한다.

관장은 항문에 약물을 주입하여 장벽에 자극을 주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며 배변을 촉진하고 장내를 깨끗이 하기위해 하는것이다. 사용

하는 약액에 따라 비누관장, “구리세린”관장, 소금물관장 등이 있지만 관장에만 의존하여 있으면 습관이 되기 쉬우므로 가급적 식사로 조절하거나 일정한 시간에 변소에 가는 습관을 부쳐 자연배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관장할때 주의할점

관장할때에는 식사전후를 피하고 실내온도에 주의하고 칸막이나 커튼으로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관장할때 자세는 약물이 잘 들어가도록 좌측을 아래로 하여 무릎을 조금 구부린 자세로 한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듯하게 드러누워 하지를 조금 벌리고 무릎을 세운다.

약물을 주입할 때에는 배에 힘을 주지 않도록 가볍게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게한다. 약물 온도는 섭씨 40~41도 정도가 좋다고 한다. 관장하는 동안에는 환자의 안색과 맥박을 잘 관찰한다. 끝난 후 변의를 느껴도 5분가량은 참는 것이 좋다고 본다.

구리세린 관장

필수품으로 “글리세린”관장기(美武 10~14호), “와세린” 또는 “오리브” 유약액 (글리세린과 미지근한 물을 반반 섞은것)(성인은 80~100c.c.) (소아는 40~50c.c)을 준비한다. 환자허리 밑에 비닐포를

건강 상담실

음식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아파

문

75세의 할머니입니다.

무엇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아픕니다. 그래서 미음내지 죽을 조금씩 먹습니다. 그러나 새벽녘이 되면 속이 비어서 그런지 또 쓰리고 아픕니다.

먹어도 아프고 안 먹어도 아프고 먹으면 속이 거북하고 죽을지경입니다. 마—지같은 대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힘이없

어서 소—민같은 주사도 몇병 맞았습니다. 잘먹어도 속안쓰리는 법은 없는지요. <서울·하월곡동 75세 할머니>

위궤양 증세인듯
맵고짠것은 나빠

답

위궤양 증세로 생각되는데 양성 악성증세중 양성으로 보입니다.

치료법으론 죽을 끓여 먹고 아침저녁으로 계란 반숙 우유등을 자시고 맵

고 짠 음식은 가급적 피하십시오. 고기는 안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물요법으로는 암포젤을 식후 1시간만에 1일 4회로 드시고 그 이외에 식전 식후 제산제를 30분마다 복용하십시오.

그러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므로 병원에 가서 위 의 사진을 찍어 위암인지 위궤양인지를 정확히 판별하고 위암인 경우에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 적십자병원 내과과장 이성환·의박>

깔고 왼쪽으로 들어눕도록 한다. 관장기에 약액을 넣어 도노관을 꽂고 그끝에서부터 삽입하는 길이 (6~10cm)에 “외세린”을 바른다. 도노관의 공기를 뽑아내고 왼손으로 항문을 다소 벌려 조절하면서 삽입하고 약물을 천천히 주입한다. 약물을 추가할때에는 도노관은 그대로 두고 주사기만 빼내고 그 방법을 되풀이 한다. 끝나면 살며시 도노관을 뽑고 잠깐동안 휴지로 눌

러 참도록 한다.

적 변

오래된 환자나 노인에서 너무 굳어져서 약물을 넣을수 없을때가 있다. 이런때는 얇은 고무장갑을 끼우고 손가락으로 조금씩, 천천히 대변을 후벼내서 그후에 배변을 촉진하는 방법을 摘便이라 한다.

<필자=경희의대 예방의학 조교수·의박>